장보배의 24번의 계절 ㉔ 동지_해인사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는 겨울의 맹위를 떨치지만, 동시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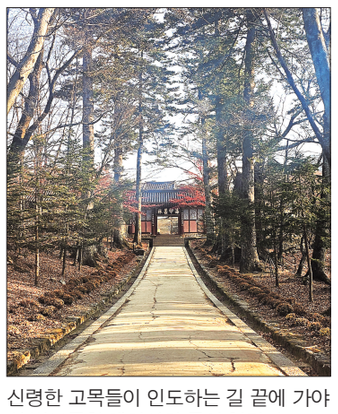
가장 긴 밤은 꺼지지 않는 빛을 부른다

해가 저문다. 아니, 해가 떠오른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태양은 떠오르리라. 흔들리던 마음도, 추위와 배고픔의 나날도, 천지를 구르던 적들의 말발굽 소리도 새 아침과 함께 꿈처럼 사라지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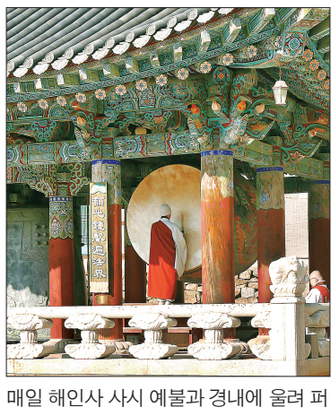
동지(冬至)는 신비로운 시간. 오늘을 위해 우리는 잠을 멈추고, 나무와 돌과 씨앗을 고른다. 지난(至難)한 것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 모두 사라지고, 나와 당신 곁으로 오고야 말 빛의 여정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을 위해.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판전을 향해 오르는 사람들이 보인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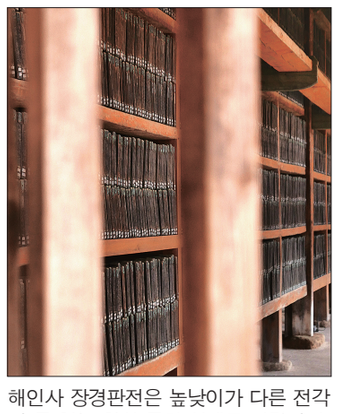
신령한 고목들이 인도하는 길 끝에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의 문이 열린다.



매일 해인사 사시 예불과 경내에 울려 퍼지는 법고 소리가 가야산을 가득 메운다.



판전 입구인 수다라장의 연화문은 매년 춘분과 추분이면 연꽃 모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신비로움을 더한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높낮이가 다른 전각과 문 없는 창살 등의 설계로 바람과 습기를 완벽히 스스로 조절한다.

길고 어두운 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두말할 것 없이 동지(冬至)일 것이다.

동지는 말 그대로 일 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을 말한다.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에 들어서는 때, 밤은 정점의 자리에 올라선다.

하지만 이 영광의 타이틀은 오직 단 하룻밤의 것. 지난가을 추분을 기점으로 점점 길어지던 밤은 동지에 들어서며 스스로 백기를 들고 만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그 밤을 끝으로, 다시 낮이 길어지는 신비가 펼쳐지는 것이다.

지구가 존재하고 자전 운동을 멈추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주의 드라마. 그만큼 이 절기에는 인간이 부여한 다양한 의미가, 또 다채로운 세시풍속의 모습이 함께한다.

옛사람들은 태양이 부활하는 동지를 설에 버금간다는 의미의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불러왔다. 이러한 모습은 서구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고대부터 이어진 태양 숭배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 겨울을 밝히는 것이다.

과거 아리아(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동지를 맞아 12월 25일마다 태양신 미트라(Mitra)의 부활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 태양 숭배 문화는 로마로 흘러가 완전히 토착화됐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며 미트라 축일을 예수 탄생일로 선포한 것이다. 본래 4세기 무렵에는 예수 탄생일을 1월 6일경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활하는 태양과 예수 탄생일이 결합한 이날은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기원으로 자리 잡게 됐다.

빛을 관장하고 인류의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태양의 힘. 어쩌면 이 길고 어두운 밤은 태양을 가장 빛나게 하는 역설의 조력자인지도 모를 일이다.

빛의 씨앗

비록 낮이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하지만, '겨울에 이르다'라는 동지의 뜻처럼 겨울은 이 절기와 함께 본격적인 맹위를 떨친다. 이즈음 혹한으로 인한 전염병, 기아와 같은 고비는 동서양을 막론한 공통의 난제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약 없는 고통의 원인과 희망을 보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찾아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동지와 함께 태양신이 힘을 회복한다고 믿으며 푸른 야자나무 가지를 집 안에 장식해 두었다. 또 로마와 북유럽에서는 같은 의미로 상록수 가지를 장식했던 것. 한겨울에도 푸른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나무가 밤의 악령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지켜 준다고 말이다. 먼 나라의 그네들에게 푸른 잎의 성스러운 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긴긴 동지 밤을 밝혀 줄 붉은 등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팥'.

태양이 밤으로부터 완전히 권력을 이양받기 전, 동지 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陰)의 세계와 한판 힘겨루기를 한다. 이때 가장 큰 구원 투수가 돼 주는 것이 바로 붉디붉은 팥알이다.

중국의 〈형초세시기〉에서 동지는 전염병의 경보가 울리는 위험한 시기다. 중국 고사 속 인물인 공공씨(共工氏)의 망나니 아들이 동지에 죽어 역귀(전염병을 옮기는 귀신)가 됐는데, 그가 생전에 몹시 싫어한 팥으로 죽을 쒀 쫓아냈다는 것이다. 이후 동짓날이나 생일, 이사 날 같은 때마다 팥은 역병과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의식(辟邪儀式)의 주인공이 돼 왔다.

동지에 팥죽이나 팥떡을 준비해 나눠 먹고, 집 안팎으로 고수레를 하는 것.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거나, 잡귀를 내쫓기 위해 상가(喪家)에 팥죽을 쒀 부조하던 옛 풍습은 이 작고 야무진 팥알 하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전폭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역귀가 팥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득한 전설. 하지만 팥이 빛으로 가득한 귀한 씨앗임은 분명한 일이다. 6~7월 첫 파종을 해 한여름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 내며 성장하는 곡식. 인간이라면 단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할 그 뜨거움을 손톱보다 작은 씨앗이 견디며 새 생명을 틔워 낸다. 그 강인한 힘을 농축시킨 검붉은 팥을 옛사람들이 귀히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빛의 한 글자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웅대하게 펼쳐진 민족의 영산(靈山)의 품에 한 천년고찰이 있다. 서늘하리만치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숲길, 수령을 알 수 없는 신령한 고목들이 인도하는 그 길 끝에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 한국불교의 승맥(僧脈)을 잇는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이곳 법보종찰 해인사를 한국의 삼보 사찰이라 칭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만 세 개의 국보와 9천여 점의 문화재가 있다는 이 산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보물 창고. 하지만 해인사를 법보사찰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고려대장경〉이다.

불법의 힘을 빌려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고려의 사람들. 하지만 고려 현종 때부터 문종 대에 걸쳐 완성한 〈초조대장경〉이 고종 19년(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고려인들은 다시 한번 16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새로 조성된 대장경은 왕실부터 귀족, 평범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모두가 힘을 모은 범국가적 사업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에 현존하는 경판 중 가장 완벽한 대장경판이 이 땅에 남은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현대에도 감히 재현하기 어렵다는 저 바람의 판전(版殿)까지도.

이 위대한 작업의 작은 틈새마다 고려인의 마음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 무모하리만치 간절했던 그들의 기원과 희망은 끝내 이뤄진 셈이다. 비록 고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땅과 사람들은 지켜져 그들이 남긴 시대의 역작과 함께 세상을 밝힌다.

완성한 경판의 수는 총 8만1258매, 팔만사천 중생의 번뇌에 대치하는 팔만사천법문을 수록했다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보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정수한 글자 '마음[心]'. 그 한 글자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머문다.

함께 이겨 내는 겨울

훈기 오른 동지 팥죽은 보이지 않는 역귀를 쫓지만, 아직 남은 겨울은 더욱 길고 무섭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묘수를 내어 고난의 시절을 이겨 내지 않았던가.

동지를 잇는 다음 절기는 소한. 오래전 다산 정약용은 가혹해지는 이 계절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소한이 오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먼저 구휼하라'는 뜻을 〈목민심서〉에 전했다. "유리걸식하는 자들도 백성이다"라고 외친 그와 천심(天心) 같은 민중의 뜻은 하나로 흘렀으리라.

가난하고 냉혹한 계절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돌아올 빛의 시간을 믿는 것. 그리고 보리심과 자비행으로 공생의 길을 열어 혹독한 시간을 끝내 함께 이겨 내는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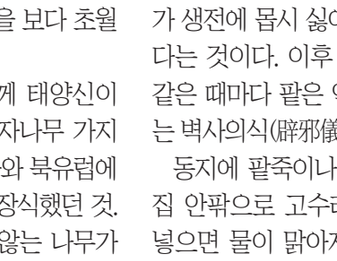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5천만 킬로미터, 영겁 같은 그 길을 달려온 빛을 자그마한 팥알 하나가 모두 품는다. 팔만사천의 고뇌도, 그 모든 것을 이겨 낼 힘도 다 가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 이 길고 어두운 밤도, 지난한 겨울도 두렵지만은 않은 것. 마침내 밤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끝〉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